ELIO'S LITTLE DISCOVERIES

# What Should We Build?

무엇을 지을까? · 걸음으로 재기



10세 · Day 038 · 함께 읽기 · 4장면



**The corner beside Tam’s gate had been empty ever since the old shed fell down. Weeds grew there, and the ground stayed wet for days after rain.**



**Elio wanted a sandbox for digging. Bori wanted a low stage for her puppet shows. Tam wanted room for more cabbages, and Mum wanted a bench in the shade.**



They stood at the edge and looked. The lot was small, the path ran along one side, and the oak threw shade over the far half of the ground.



**“Six of my steps across,” said Elio. “Nine of mine,” said Bori. They looked down at their own feet, then at each other’s feet, and laughed.**

# 함께 발견해요

**읽기 전**

표지의 빈터와 돌 표시를 봐요. 우리 동네에 작은 놀이터를 만든다면 무엇을 두고 싶은지 물어봐요.

**함께 읽을 때**

엘리오의 여섯 걸음과 보리의 아홉 걸음이 왜 다른지 그림에서 확인해요.

**생각 나누기**

무대를 포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? 보리와 엘리오가 마지막에 무엇을 얻었는지 찾아봐요.

**생활에서**

집 안의 작은 공간을 걸음으로 재어 보고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려 봐요. 자로 재지 않아도 괜찮아요.

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.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.

ELIO original story · 제1판
교육자·보호자·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.